

# 광양, 글로벌 미래도시 만들기 박차

###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 국제화·국제교류 주요사업 설명 자매·우호도시 확대 방안 등 논의

광양시가 국제화·국제교류 증진 통해 글로벌 미래도시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비전 실현을 위한 '2024년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산·학 협의체로, 당면직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광양시 국제화·국제교류 주요 사업과 2023년 추진성과 ▲2023년 제안 사항 이행결과와 2024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양시는 1991년 오스트리아 린츠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9개국 17개 도시와 국제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해 교류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방문해 ▲광양-린츠 수소 산업 협력 간담회 개최 ▲문화예술·교육 분야 3건의 MOU 체결 ▲광양시 청소년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등 자매도시 간 실질적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필리핀 까가안데오로시 ▲히갈라이 축제 ▲중국 선전시 '혁신도시 캠프' ▲중국 다롄시 'RCEP 화원국 상품전에 참가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사업을 펼쳤다.

올해도 국제화·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북마·호주 지역 자매·우호도시 추진 ▲중국 선전시와 자매결연 20주년 우호교류 사진전과 상호방문 ▲언어·문화장벽 없는 도시 만들기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동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장은 "민선 8기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건설 비전 실현을 위해 시장 분야별 연계와 단계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이 우리 시 국제화·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은성 광양시 철강항만과장은 "이번 회의가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자양분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시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 수춘마을 주민 작품전 보러오세요 27일 보성군 회천면 울포해수욕장센터 1층 보성아트홀에서 열리는 '조성면 수춘마을 성인문해교실 작품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오는 3월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주민들의 시화 등 작품 45점, 탄소중립 실천 포스터 15점 등을 만날 수 있다. <보성군 제공>

## 순천시, 소상공인 150억원 규모 대출 지원

### 대출금 이자 5%까지 2년간 보조

순천시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5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지원은 분기별로 1분기 60억원, 2분기 50억원, 3분기 30억원, 4분기 1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보증대출지원' (일반보증·특례보증)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나뉜다. 순천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행, 순천신협, 순천중앙신협 등 8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융자 기간, 대출금리 산정 방법·종류 등에 관한 논의를 마쳤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 시 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대출금 이차 지원 금리를 전년(2%)보다 올린 5%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다.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이자의 최대 5%까지 2년간 보조하는 이차보전방식이다. 신청은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순천시는 오는 3월4일까지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이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대출 보증사업을 통해 192곳에 47억원 규모 일반보증, 57곳에 15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이차보전사업으로는 6억1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 건멸치 미국 수출 물꼬 텃다

### 오성수산, FDA 식품안전 인증

여수의 한 멸치 가공업체가 미국 FDA(식품의약국) 국제식품안전 인증을 받으면서 미국 수출의 물꼬를 텃다. 여수시는 돌산읍에 있는 오성수산(사진) 건멸치가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FDA 그린 리스트'에 등재됐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는 그동안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여수시는 수산가공식품 업체가 새롭게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식품인증 취득과 기반연장(갱신)에 드는 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 사업 대상자에는 오성수산을 선정해 미국 FDA 그린 리스트 등재를 위한 상담·등록 비용 16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업체는 일본, 베트남 등에 마른 멸치를 수출해왔다. 이번에 미국 FDA 등재에 성공하면서 미국으로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수출금액은 500만달러(67억원)가 넘을 것으로 여수시 측은 내다봤다. 최근 세계 수출시장은 GFISI(국제식품안전협



회의)의 FSSC22000, BRC Food(영국), FDA(미국) 등 국제식품안전 인증을 받은 식품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역 내 수산물의 미국 수출 물꼬를 터 여수 수산물의 품격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다른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해안 제1의 수산도시 명성에 걸맞게 수산물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서 삼겹살 백반 먹고 커피 쿠폰 받으세요

### 3월3일 삼겹살 데이 이벤트

"삼겹살 데이(3월3일), 고흥 삼겹살 백반거리에서 밥 먹고 커피 마셔요." 고흥군이 3월1일부터 10일까지 삼겹살 백반거리(과역면) 관광 후기 이벤트를 한다. 삼겹살 데이에 맞춰 백반거리를 전국에 홍보하고 고흥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백반거리를 방문·식사하고 관광 후기를 SNS에 등록하거나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당첨자는 선착순 700여명까지이며, 영수증 금액(2만~6만원)의 20%를 모바일 커피 쿠폰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3월20일 고흥관광 블로그에 게시



고흥 백반거리 삼겹살 백반.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과역 삼겹살 백반거리를 찾는 관광객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고흥 음식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구례군 다음달 10일까지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생 모집

구례군 다음 달 10일까지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 '8기 생활목공 DIY 초·중급반' 교육생 16명을 모집한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에는 초급반 10명, 중급반 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공예 추천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목공 도구와 전동 장비의 사용법, 도면작성, 목재의 종류와 성질 등 목공예 전반을 다루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현장 강의를 병행한다. 교육 기간은 오는 3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이다. 교육 신청은 구례목재문화체험장을 방문하거나 팩스(061-780-2699), 전자 우편(ghost1364@korea.kr)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과 지리산정원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탄소 중립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